

담당부서 :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	자활지원과장	윤 순 용	2133-7480
	자활시설팀장	이 병 구	2133-7492
사진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매수 : 4매	담당자	김 수 철	2133-7493

## 서울시, 의료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 시행

-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무료 결핵검진 시행(10.16~10.20)
- 시, 서북병원, 대한결핵협회(서울지부), 노숙인 쪽방 시설 등 16개 기관(시설) 참여
- 결핵 감염자 이송 치료 및 퇴원 후 이력관리로 결핵 전염 사전예방 강화

□ 서울시는 취약한 주거환경과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(4월)에 이어 하반기(10월)에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전염 예방 및 건강관리에 앞장선다.

○ '16년 대한결핵협회 '노숙인 결핵검진의 성과 및 경제성 분석'에 따르면 '14년 일반인구의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84.9명, 노숙인은 182.3명으로 노숙인이 2.15배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

※ '17년 상반기 결핵검진(4.10~4.28) : 1,707명('17년 목표 2,820명의 60.5%)

□ 서울시는 오는 10월 16일(월)부터 10월 20일(금)까지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, 영등포역에서 대한결핵협회(서울지부), 다시서기종합센터, 쪽방상담센터 등과 합동으로 노숙인,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한다.

□ 이번 하반기 결핵검진은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시설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, 쪽방 주민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. 쪽방 주민 대상 검진은 2017년 상반기에 이뤄졌고(2017년 상반기 1,122명 검진 실시) 하반기 검진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.

○ 노숙인 시설(자활, 재활, 요양)에서 생활 중인 2,451명 노숙인은 시설 내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 이번 검진대상에서는 제외

□ 이와 함께, 결핵검진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숙인종합지원센터(2개소), 일시보호시설(4개소), 쪽방상담소(5개소)에 검진 안내문을 비치하고, 대상자에게도 안내문 직접 배부 등 검진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- 결핵검진 일정 : 총 4회

구 분	검진일시	장 소	예상인원
영등포역	10.16(월)~17(화) 16:00~19:00	광야교회 앞 임시주거시설 옆 공터	450명
서울역	10.19(목)~20(금) 16:00~19:00	서울역 광장	663명

□ 검진은 전문의와 전문장비를 현장에 배치, X-ray 촬영 후 현장판독과 결핵증상자에 대한 객담 검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며, 결핵환자는 결핵전문 병원인 서북병원으로 즉시 이송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병원치료 후에도 자치구 보건소,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관련 기관(시설)과 연계한 지속적인 투약 및 이력관리로 결핵 완치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.

□ 그동안 서울시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결핵검진 시행과 철저한 결핵전염 예방의 노력을 기울여왔다. 그 결과 시 결핵발생률은 2014년 1.3%에서 2017년 상반기 0.82%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.

※ 최근 3년간 결핵검진 현황

연도	검진인원(명)	결핵환자(명)	발생비율(%)
2017(상반기)	1,707	14	0.82
2016	2,723	23	0.84
2015	2,565	29	1.1
2014	2,772	37	1.3

□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“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” 며 “서울시는 지속적인 결핵검진 및 사후관리로 결핵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## 결핵검진 현장('17년 상반기) 사진



결핵검진 현장(서울역)



결핵검진 현장(쪽방촌)



접수



X-Ray 촬영

붙임 : 결핵검진 현장 사진